



一步후퇴 二步전진

일반적으로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면 인쇄업 경기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

불경기가 싫으면 우선 국영기업체를 비롯, 대기업 등에서 홍보용 인쇄물을 선두로 각종 인쇄물 발주를 줄이는데 관례처럼 되어 왔으며 소비가 위축되면서 출판물은 물론이고 생활관련 인쇄물의 수요가 줄어들고 과자류 빙과류 등의 판매부진은 곧바로 해당제품 인쇄물의 감소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최근 넓직한 공장까지 신축한 A사장은 요즘 성장위주의 경영방침을 내실 위주로 바꾸고 있는 중이다. 업무용 차량 8대를 줄여 1억원정도를 절감했으며 조직의 활성화와 몸집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간부 10명을 젊은층으로 바꿨다.

A사장은 현장도 분주하게 챙기고 있는데 좁은 공장에서 일할 때는 바쁘게 움직이던 현장이 동선도 길어지고 넓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속도감이 떨어지고 생산성 향상 효과도 크게 보고 있지 못하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재무구조가 알찬 인쇄사도 위기감을 느끼고 '생존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전반적으로 인쇄업계는 비수기에 접친 불경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추위를 느끼는 상황이다.

인쇄물은 경기활성화의 유효유 역할을 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 기업의 각종 홍보용 인쇄물을 비롯,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인쇄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생활 수준이 그만큼 움츠러든다고 지적해도 틀린 표현은 아닌 듯하다.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인쇄, 출판물의 영역을 대체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인쇄업계가 지나치게 겁을 낼 일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IMF사태 당시 많은 인쇄사들이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을 내세워 멸절된 인쇄기계를 헐값에 대량으로 내다 팔았으며 기술인력도 현장에서 많이 떠나보냈는데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왜냐하면 일부 인쇄사에서는 적정 작업량도 소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을 줄였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값에 새로운 시설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때 인쇄업계를 떠난 인력중 상당수가 인쇄업계에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기술인력난을 가중시킨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인쇄사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업계 전체로 볼 때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뾰족한 대책이나 활로를 찾는

길이 쉽지 않은 않은 일이다. 또한 겉으로는 "당장 때려치워야겠다"고 흥분하는 대부분의 인쇄인들도 속마음은 외길로 걸어 온 인쇄업에 많은 미련과 애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이 들지만 계속 인쇄경영인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발 움츠렀다가 두발 뛴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여름을 이겨내야만 한다. 인쇄업 경영에는 창의력과 꾸준함, 성실성을 접어두고 뛰어가는 지름길은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세익·편집주간〉

한발 움츠렀다가 두발 뛴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여름을 이겨내야만 한다. 인쇄업 경영에는 창의력과 꾸준함, 성실성을 접어두고 뛰어가는 지름길은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